

순천시, 정원도시 기반 ‘미래산업 융합도시’ 도약

민선8기3주년

문화콘텐츠·우주·그린바이오 3대 경제축
영호남 통합...생태·산업·복지 혁신 본격화

순천시가 정원도시 기반 위에 문화콘텐츠, 우주항공, 그린바이오 등 3대 미래산업을 정착시키고, 치유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도시로 도약한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3년간 시정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순천시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단 7개월 만에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도시 위상과 시민자부심을 크게 끌어올렸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국가정원은 연간 425만 명 이상이 찾은 국내 대표 관광지가 됐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위기 극복을 이끈 도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UN-해비타트 주관 아시아도시경관상 등 국제적 평가도 뒤따랐다. 순천시는 이러한 정원도시 기반 위에 문화콘

텐츠, 우주항공,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로커스, 케나즈 등 글로벌 에나·웹툰 기업이 이전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5개 콘텐츠 기업이 원도심에 입주한다.

우주항공·방산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조립장 완공 이후 누리호 6호기 제작에 착수했으며, 향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승주읍 일대에 바이오·발효재단, APC, 미생물센터 등을 집약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는 산업 다각화 기반 위에 치유산

업을 융합한 도시전략을 추진 중이다. 갯벌치유 관광플랫폼을 중심으로 도심 전역에 분산된 치유자원을 연결해 전국 최고의 치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해당 사업은 국비 160억원 확보와 정부 행정절차도 마무리돼 본격 추진 중이다. 시는 해외 연수를 통해 순천형 치유모델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했다.

순천시는 영호남 통합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미래첨단산업벨트 구축, 세계적 생태도시 도약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드론·그린바이오·방산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병행해

미래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청년 정책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치매관리 전국 1위, 전남 유일 심뇌혈관센터 유치 등으로 복지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246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복합공간,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노관규(사진) 순천시장은 “순천은 산업·문화·복지·환경을 고르게 갖췄으며,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장흥 무산김, 전국 하나로마트 유통망 진출

2천200개소에 납품...어업인 소득 증대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친환경 무산김이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타고 전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장흥군은 “최근 관산농협 회의실에서 장흥군 산농협과 장흥무산김주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무산김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천200개소의 판매점에 공급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장흥 무산김의 전국 유통망 진출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 무산김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 획득한 친환경 김으로,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수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수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산김 산업의 고도화, 전국화,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흥 무산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자, 전국 농협 유통망 납품이라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라며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

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동광양농협동조합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장흥군에 기탁하며 상생과 지역 간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장흥 무산김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 획득한 친환경 김으로,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수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이정국 담양부군수 “군민 존중·섬김 행정 실현”

취임 후 공식 업무 돌입

이정국 제28대 담양군 부군수가 1일 공식 취임했다. <사진>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정국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담양군청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에서 취임 인사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업무에 돌입했다.

담양 출신인 이 부군수는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전남도청과 나주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주요 부서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을 역임하며 재난 대응·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광양만권개발부장,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담양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부군수



임명으로 다시 고향 담양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부군수는 “고향인 담양에 부군수로 돌아와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 발전에 기여하고, 정철원 군수와 함께 군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시는 최근 웅천 암골못공원 내 바닥분수 광장에서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웅천 암골못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준공

경사 미끄럼틀·바닥분수 등 조성

여수시는 “최근 웅천 암골못공원 내 바닥분수 광장에서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10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축사, 준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웅천 암골못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2016년 웅천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노후 공원을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간 리모델링한 것으로 총사업비 30여원이 투입됐다.

자연 지형을 활용한 경사 미끄럼틀, 자가발전

자전거, 바다분수, 조합놀이대, 집라인 등 체험형 놀이기구로 이뤄져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공원 내 산책로를 210m 연장하고 녹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 휴식·여가 공간으로의 기능을 확대했다.

정기명 시장은 “밖에서 뛰노는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생각키움 체험놀이터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동강전통시장 물가동향 점검

고흥군은 2일 “전날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동강전통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대응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동강전통시장 상인회, 유관기관 등 35여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급등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흥군은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부당 상가대 행위 근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물가가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군수가 직접 나서주니 든든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상인들 역시 “착한가격을 지키며 시장을 살리는 데 동참하겠다”는



되는 따뜻한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피서지 인근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음·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진 기자

장성군, 80세 이상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

7만2천원 카드 지급...내년 2배 확대

장성군은 2일 “이달부터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80세 이상 장성군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에 1인당 7만2천원 상당의 택시전용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14만4천원을 충전해 준다.

택시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

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단, ‘100원 행복택시’ 이용 중인 주민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새로 시행하는 ‘어르신 택시바우처’ 사업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 ‘청춘신작로 바닥분수’ 운영

10월까지 하루 2회...2주마다 수질검사

화순군은 2일 “여름철 폭염 대응과 도심 속 군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청춘신작로 바닥분수(사진)를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춘신작로 바닥분수는 도심 속 개방형 물놀이 시설로 특히 여름철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매년 무더운 여름철 군민 휴식처로 자리매김했다.

바닥분수는 하루 두 차례로 나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우천 시에는 가동이 중단되며, 폭염특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바닥분수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늘막은 햇볕을 피할 또 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청춘신작로에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닥분수는 본격 운영에 앞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운영 동안 2주 간격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으로 현재 모든 항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춘신작로 바닥분수는 일상에서 짧게나마 무더위를 식히고 가족과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전 조치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